

2014년 7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

할매의 봄날
お婆さんの春の日

하면 할수록
すればするほど

보람되는 일이 공부라고 생각한다.
価値があることが勉強だと考える

처음 한글을 배우러 갈 때는 남 앞에서
初めて、ハングルを学びに行くときには、人前で

내 이름 석 자를 뿔뿔이 써보고 싶었다. 그런데
私の名前を、3字をまともに書きたかった。しかし

지금 공부하고 나서는 다른 좋은 일이 참 많다.
今勉強してからは、他にいいことがとても多い

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별별 경험을
おそくても、勉強を始めて色々な経験を

다 해봤다. 공부처럼 좋은 건 없다.
みんなしてきた。勉強のようにいいことはない

- 이영복의 《할매의 봄날》 중에서 -
- イ・ヨンボクの〈お婆さんの春の日〉より -

* 이영복 할머니.
* イ・ヨンオクお婆さん

1928년 출생하셨으니까
1928年に生まれたから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입니다.
いつの間にか90を望む年齢です

17세에 결혼, 78세에 한글공부를 시작하여
17歳で結婚、78歳でハングル勉強を始め

81세에 초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 1등으로 마치고
81歳に、小学校の過程を検定試験1等で終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며 책까지 쓰셨습니다.
今も熱心に勉強して、本まで書きます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는 시간이
いくら年をとっても勉強する時間が

‘할매의 봄날’입니다.
‘お婆さんの春の日’です

보람되다
[형용사]かい[やりがい]がある.

三字抹消 발음 재생 (표제어: まっしょう)

석 자 지움

땃땃이

[부사] 潔く; 晴れて; やましいところなく; まともに.

별별 (別別)

[관형사] いろいろな; さまざまな; ありとあらゆる(種類の). (=별의별)

경험 (經驗)

[명사] 經驗.

어느덧

[부사] いつの間にか. (=어연간에)

아흔

[수사] [관형사] 九十. (=구십)

검정고시 検定試験; 検定

2014년 7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

부부, 하나가 되어 흐르는 물
夫婦、一つになって流れる水

우리 부부는
我々夫婦は

두 개였다가 이제는
2つだったが、これからは

하나가 된 구름입니다.
一つになった雲です。

우리는 햇살에 녹은 두 개의
我々は、日光にとける2つの

얼음 덩어리였다가 이제는
氷塊だったが、これからは

하나가 되어 흐르는
一つになって流れる

물이지요.
水です

- 파올로 코엘료의 《알레프》 중에서 -
- パウロ・コエーリオの〈アレフ〉より -

* 하나가 된 구름.
* 一つになった雲

하나가 되어 흐르는 물.
一つになって流れる水

'부부'가 가야 할 길입니다.
'夫婦'が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道です

흐르다가 바위나 돌부리를 만나면
流れて、岩や石に会えば

속절없이 부서지지만 곧 다시 하나로 뭉칩니다.
むなしく崩れるが、からなずもう一度一つになります

가파른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쏟아지고
険しい絶壁に会えば、滝になってあふれて

호수를 만나면 고요하게 흐릅니다.
湖に会えば、静かに流れます

변화무쌍한 인생의 강물에
変化にとんだの人生の川に

하나가 되어 흐릅니다
一つになって流れます

녹다

[자동사]

溶ける(*금속의 경우는 ‘溶[熔](と)ける’로도 씀).

(굳은 것·쇠붙이 등이) (金属·固い物が)液体に...

(물에 풀림) 水に溶ける; 溶解する.

ひょうかい [氷塊] 발음 재생

빙괴; 얼음 덩어리.

바위

[관광지] (자연관광) 岩 (일본어표기: パウイ)

속절없이

[부사] どうしようもなく; やるせなく; むなしく.

부서지다

[자동사]

(조각나다) 壊れる; 砕ける; めげる[방언]. [작은말] 부서지다.

(사개가) 蟻差しがそれる.

(期待や希望などが) 壊れる; 崩れる.

몽치다

[자동사]

ひとかたまりになる.

團結する.

[타동사] 多くのものを集めて一つにかためる; ひと固めにする.

가파르다

[형용사] (山や道の) 勾配が急だ; 険しい; 切り立つ...

瀑布 발음 재생

폭포

2014년 7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

영혼으로 듣는 생명의 음악
魂で聞く生命の音楽

“네 영혼으로
“あなたの魂で

음악을 듣도록 해.”
音楽を聴くようにしなさい”

덩컨은 가난도 고독도
ダンカンは、貧困も孤独も

하얗게 잊게 하는 음악이, 춤이 좋았다.
真っ白に忘れさせる音楽が、踊りが好きだった

무용을 하는 언니 엘리자베스를 따라 춤을
ダンスをする姉の、エリザベスにそって

추었다. 혼자서 숲속과 해변을 뛰어다녔다.
踊った。一人で、森の中と、海辺を飛び回った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는 음악이었고,
風の音と、海の音は音楽だった

몸짓은 곧 춤이 되었다.
身振りはすなわち、踊りになった

- 홍영철의 《너는 가슴을 따라 살고 있는가》중에서 -
- ホン・ヨンチョルの〈あなたは心のままに生きているか〉より -

* 모든 소리가
* 全ての音が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音楽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모든 움직임이 춤이 될 수 있습니다.
すべての、動きが踊り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음악,
耳だけで聞かず、心で、魂で聞く音楽

내 내면이 평화롭고 고요해야 들립니다.
私の内面が平和で、静かで聞こえます

새소리 빗소리 바람소리도
鳥の声、雨の音、風の音

생명의 음악이 됩니다.
生命の音楽になります

춤
[명사]踊り; 舞; 舞踏; 舞踊; ダンシング; ダンス.
ページ(1)

20140716.txt

몸짓

[명사] 身振り; ジェスチャー.

2014년 7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

여름은 너무 덥다
夏はとても暑い

여름은 너무 더웁다.
夏はとても暑い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쉴 사이 없이 바쁘다.
することも、長いことが多く、休む間がなく忙しい

그래도 여름이 없다면 큰일이다. 뜨거운 햇볕
それでも、夏がなければ大ごとだ。暑い日差し

덕분에 벼도 과일도 잘 크다. 더위와 많은
のおかげで、稲も果実もよく育つ。暑さと沢山の

일 속에 정신없이 살며
ことの中に、夢中で生きて

가을을 기다린다.
秋を待つ

- 이영복의 《할매의 봄날》 중에서 -
- イ・ヨンボクの〈お婆さんの春の日〉より -

*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 夏は暑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름이 덥지 않으면 그것도 재앙입니다.
夏が熱くないなら、それも災害です

그러나, 덥기 때문에 식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しかし、暑いために、冷ますこともわ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숲속, 강가, 나무그늘을 찾아 시원한 바람을
森の中、川岸、木陰を探して涼しい風を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胸に貯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しないなら

더위에 밀리고 더위에 먹혀
暑さに押され、暑さ飲まれ

여름이 더 덥습니다.
夏がさらに暑いです

뜨겁다
[형용사]
熱い.
温度が高い.
(感情などが)熱烈だ.

벼
[명사][식물] 稲.

정신없이
[부사] 我を忘れて; 無我夢中で; 夢中で.

식히다

[타동사] [‘식다’의使役] 冷やす; 冷ます.

그늘

[명사]

(응달) 陰; 物陰.

(보호 밑) (親または人の)もと; 庇護.

(남을 피함) (人目に触れない)日かけ.

밀리다

[자동사]

(物事が)たまる; 渋滞する; 滞る; つかえる.

[‘밀다’の受け身] 押される.

먹히다

[자동사]

[‘먹다’の受け身] 食われる; 飲まれる; 吞まれる; えじきにな...

食べられる; 食欲が盛んになる.

(金が)かかる.

2014년 7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가진 것을 오늘 사용하라
今日持ったことを今日使おう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今日持っていることを

오늘 사용하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今日使ってください。明日まで待た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ないてください。あなたは今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すでに分かっています。忘れないでください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今それをしてください!

시작이 반입니다.
始まりが半分です

- 사야도 우 조티카의 《마음의 지도》중에서 -
- ウ・ジョーティカの〈心の地図〉より -

* 많이 가졌어도
* 沢山持っていても

쌓아두기만 하면 내것이 아닙니다.
積んでおくだけでは、私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것이 됩니다.
使う時、漸く本当の私のものになります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誰のためにどのように使うかが重要です

'나'를 위해 사용하면 열매가 되지만
'私'のために使えば、実になるが

'남'을 위해 사용하면 씨앗이 됩니다.
'他人'のために使えば、種になります

행복의 씨앗.
幸せの種

쌓다
[타동사]
(포개다·구축하다) 積む; 築く; 重ねる.
(공적·경험 등을) (功績·技術·経験などを)積...
[보조동사] (動詞の後で '—어 쌓다' の形で) 前の言葉の...

2014년 7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정현애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ン・ヒョ네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마음속 '꿈' 보석
心の中の'夢' 宝石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면
我々が整ってない原石なら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どう削るかによって、ダイヤモンドになることもあり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로 버려질 수 있다.
何の価値もない小さな石ころで捨てられることもある

도전과 고통을 이겨내고 나 자신과 직면할 때,
挑戦と苦痛に勝って、私自身と直面するとき

마음속 '꿈'이라는 보석은 오색찬란한
心の中の'夢'という宝石は五色燦然と

별이 되어 빛날 것이라 믿는다.
星になって、輝くものと信じる

- 김수영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중에서 -
- キム・スヨンの〈止まるな、もう一度夢から書いてみて〉 -

* 한결같이 삶속에서
* ひたすら人生の中で

좌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묵묵히
挫折せず、夢に向かって黙々と

도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들이 있는 듯합니다.
挑戦する人々は、共通点があるようです

두려움, 미움, 죄의식, 오해, 분노, 아픔의 고통에서
恐怖、憎しみ、罪の意識、誤解、憤怒、痛みの苦痛から

용기, 평화, 용서, 자유, 화해, 명상과 치유로 옮기는
勇気、平和、許し、自由、和解、瞑想と治癒に移す

기적의 삶을 마음에 품은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奇跡の人生を心にだいた懸命な人々です

진정한 자유인은 마음속 보석, 곧 '꿈'을
本当の自由人は心の宝石、すなわち'夢'を

가진 사람입니다.
持った人です

다듬다

[타동사]

整える.

(정돈하다) 手入れをする; きれいにする; 練る; 仕上げる.

(야채·초목 등을) (野菜の根などを) 切り取ってきれいにする; ...

돌덩이

[명사] 石ころより大きく岩よりは小さな石.

오색찬란하다 (五色燦爛—)

[형용사] 五色燦然としている.

한결같이

[부사] 等しく; 一様に; いちずに; ひたすら; もっぱら; 倦まず弛(た...

옮기다

[타동사]

[‘옮다1’의 使役] (자리를) (物の位置を) 変える; 移...

(거처 등을) 移転する; 移す; 引き移す.

(행보·실천) 転ずる; 移す.

현명 (賢明)

[명사] 賢明.

2014년 7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

'내 아이라서 고마워!'
'私の子供でありがとう!'

아이를 칭찬하거나
子供を称賛したり

사랑을 표현할 때 좋은 말이 있다.
愛を表現するとき、いい言葉がある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네가 녹장을
"おまえが私の子供でありがとう", "お前がもたもた

부러도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네가 엄마
しても、お前がわたしの子供でありがとう", "お前がママの

애간장을 녹여도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はらわたを溶かしても、お前が私の子供でありがとう"

"응가도 힘들게 누고, 어른 팔뚝만 한 똥을
"うんちも大変にして、大人の腕ほどのうんちを

뉘서 비닐장갑 끼고 똥을 으깨야 하지만
して、ビニール手袋を付けてうんちを砕いた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おまえが私の子供でありがとう"

그래야 아이가 크다.
そうして、子供が大きくなる

- 임영주의 《엄마라서 행복해, 내 아이라서 고마워》 중에서 -
- イム・ヨンジュの<ママだから幸せ、私の子供でありがとう>より -

* 작년 여름
* 去年の夏

아들과 함께 몽골 여행에 참여했던 한 아버지는
息子とともに、モンゴル旅行に参加したときある父が

"아들이 태어나서 3년 동안 참으로 많이 웃을 수
"息子が生まれて、3年の間本当にたくさん笑うことができ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たことだけでも、感謝している"と言いました

내 아이로 태어나준 것도 너무 고맙고,
私の子供で生まれてくれたことも、とてもうれしく

사랑을 알게 한 것도 너무 고맙고,
愛をわかるようにしたことも、とてもうれしく

살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生きて存在するだけでも

고마울 따름입니다.
有りがたいばかりです

칭찬 (稱讚)

[명사] 称赞[賞賛](しょうさん).

늑장

[명사] (急用を差し置き) ぐずつくこと.

부리다¹

[타동사]

使う.

(일을 시킴) 働かせる; 仕事をさせる.

(조종하다) (機械などを) 操る; 動かす.

응가

[명사] [감탄사] [유아어] 幼児に便をさせる時に使う言葉: うん...

팔뚝

[명사] 腕; 小手; 前腕; 前膊.

누다

[타동사] 大小便をする; 垂れる.

으깨다

[타동사]

(固い物を) (押し) つぶす; すりつぶす; 砕く.

硬いものを柔らかくする; 搦る; つぶす; 練る.

2014년 7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

'명품 사람'
'名品の人'

마음이 편해야
心が楽で

입은 옷이 명품이고
着る服が名品で

시간을 아끼고 잘 지켜야 시계가 명품이고
時間を惜しんで、ちゃんと守って時計が名品で

반가워하는 물건이 나와야 가방이 명품이고
うれしいものがでて、カバンが名品で

배고픈 사람에게 지폐가 나와야 지갑이 명품이란다
おなかですいた人に紙幣が出て、財布が名品だが

언제나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いつも、寛大で、温かさが溢れた心を持った

명품인 사람들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名品である人は、どこにいるんでしょうか

- 한희숙의 시집 《길을 묻는 그대에게》에 실린 시 〈넋두리〉 중에서 -
- ハン・ヒソクの詩集〈道を問う君に〉に掲載された詩〈泣き言〉より -

*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 たくさんの人々が生きているが、

키도 얼굴도 다르고 품격도 다 다릅니다.
背も顔も違って、品格も皆違います

마음의 크기, 의식의 수준도 저마다 다릅니다.
心の大きさ、意識の水準も人ごとに違います

중요한 것은 '마음 씩씩이'에 달려 있습니다.
重要なことは、'思いやり'にかかっています

'마음이 고와야 미인'이라는 노랫말처럼
'心が美しくて美人'という歌詞のように

언제나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いつも、寛大さと温かさが溢れる

사람이라면, 그가 곧 최고의
人ならば、それがまさに最高の

'명품 사람'입니다.
'名品の人'です

반가워하다
[타동사]喜ぶ; うれしがる; 懐かしがる. (=반기다)
너그럽다

20140722. txt

[형용사] 寛大だ; 度量が大きい.

넋두리

[명사]

(무당의) (巫女の) 御託; 口寄せ; 死に口.

(푸념) 愚痴; 泣き言; 愚痴話.

쏟쏟이

[명사] 費用; 支出; 掛かり.

2014년 7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

슬픈 신부,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순간
悲しい新婦、しかし一番幸せな瞬間

육신의 병 때문에 이뤄졌던
肉体の病気のため行われた

결혼식 날, 하염없이 슬픈 신부였지만
結婚式の日、とめどなく悲しい新婦だったが

그래도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それでも、振り返れば一番幸せな瞬間だった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만든 날이었으니.
この男性を、私の夫とする日だったから

예술적 감성과 재능, 인간적 매력을 함께 갖춘
芸術的感性と、才能、人間的魅力をともに備えた

이 우주적 천재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この宇宙的天才をどこで会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그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 주눅들 때도
彼の光彩がとても眩しく、気をくれするときも

있었지만, 나를 예술가로서 더욱
あったが、私を芸術家として一層

정진하게 하는 자극이 되었다.
精進させ、刺激した

- 구보타 시게코의 《나의사랑, 백남준》중에서 -
- 久保田成子の〈私の愛、白南準〉より -

* 시게코가 병이 걸리는 바람에
* 成子が病気にかかったために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된, 그래서 '슬픈 신부'였지만
ようやく結婚するようになった、だから'悲しい新婦'だったが

그럼에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それでも、一番幸せな瞬間でもありました

슬픔과 기쁨은 붙어 있습니다. 슬픔 속에
悲しみと喜びはくっついてます。悲しみの中に

기쁨이 숨어 있고, 기쁨 속에 남모를
喜びが隠れていて、喜びの中に誰も知らない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
悲しみが溶けています。悲しみの瞬間

기쁨의 시간 모두 지나고 보면
喜びの時間、すべてが過ぎてみれば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一番幸せな時間です

이뤄졌던行われた

하염없이

[부사]心うつろに; 止めどもなく.

천재 (天才)

[명사]天才.

こうさい [光彩] 발음 재생

광채.

おくれ [後れ] 발음 재생 중요

겁냄; 주눅. (=氣おくれ)

정진 (精進)

[명사]精進.

자극 (刺戟)

[명사]刺激.

남모르다

[형용사]だれにも知られない; 人が知らない.

2014년 7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

눈맞춤
目を合わせること

내가 당신을 보고
私があなたを見て

당신이 나를 본다는 것은
あなたが私を見るということは

두 개의 영혼이 만나는 것과 같다.
二つの魂が合うことのように

눈맞춤은 오래 본다가 아니라 뚫어지게 본다가 아니라
目を合わせることは、長い間見たり、

노려보는 게 아니다.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
覗むのではない。見ることは重要だ

볼 수 없다면 어루만짐을 줄 수 없다.
見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愛撫もできない

- 에이미 해리스, 토머스 해리스의 《완전한 자기긍정 타인긍정》 중에서 -
- エイミー・ハリス、トーマス・ハリスの〈完全な自己肯定他人肯定〉より -

* '눈빛'이라고 하지요.
* '眼光'というでしょう

눈맞춤은 서로 눈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目が合うことは、お互い眼光を分けることです

섬광보다 더 빨리 0.1초 사이에 마음을 나누고
閃光よりもっと早く、0.1秒の間に、心をつかち合い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볼 필요도,
心を読むことです。長い間見る必要も

노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覗む必要もありません。心をためて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을 눈으로
眺めればよいです。心の目で

어루만지듯이.
愛撫するように

노려보다
[타동사]
にらむ; にらみつける; にらまえる[속어]; (鋭い目付きで)見つ...
(物や機会を)ねらう.

어루만지다
[타동사]
なでさする; なでる; さする.
いたわる; 慰撫する.
눈빛1

20140724. txt

[명사]

(기색) 目色; 目つき.

(빛깔) 目の色; 眼光; 目の輝き.

섬광 (閃光)

[명사] 閃光.

2014년 7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터닝 포인트
ターニングポイント

지금 이 순간에도
今この瞬間にも

나는 정확히 그날을 기억할 수 있다.
私は正確に、その日を思い出すことができる

처음 사막을 향해 떠났던 그날, 벌써 35년이
最初、砂漠に向かって発ったその日、もう35年が

흘러버린 바로 그날, 내 인생은 180도 바뀌어
流れたまさにその日、私の人生は180度変わって

버렸다. 내 나이 열일곱 살이었다. 6주 동안의
しまった。私の歳は17歳だった。6週の間

여름방학을 이용해 함부르크를 떠나 파리와
夏休みを使って、ハンブルグを発って、パリと

바르셀로나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バルセロナを経由して、北アフリカへ

향하는 사막 여행이었다.
むかう砂漠旅行だった

- 아킬 모저의 《당신에게는 사막이 필요하다》 중에서 -
- アキール・モーザーの〈あなたには砂漠が必要だ〉より -

* 십대의 사막 여행 한 번이
* 10代の砂漠旅行、1度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놓았습니다.
一人の人生を変えてしまいました

인생을 바꾸는 경험, 운명을 바꾸는 점 하나,
人生を変える経験、運命を変える点一つ

그것을 가리켜 '터닝 포인트'라 부릅니다.
それを示して'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呼びます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의 점!
新しい挑戦、新しい出発点!

위대한 시작입니다.
偉大な始まりです

열일곱17

2014년 7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세린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セリム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질투와 시기심의 차이
嫉妬と、猜忌の差異

아리스토텔레스는
アリストテレスは

시기심과 질투를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猜忌と嫉妬を区分して説明した

질투는 이웃이 가진 걸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嫉妬は、隣人が持ったことを自分がもつことができない悲しい

것이다. 한편,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이웃이
ことだ。一方、猜忌は、自分が持つ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隣人が

가지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다. 질투의 초점이
持っている悲しみ感情だ。嫉妬の焦点が

본인에게 있다면, 시기심의 초점은 타인에게
本人にあれば、猜忌の焦点は他人にある

있다. 시기심은 언제나 밖을 향한다.
猜忌はいつも外を向く

- 함규정의 《서른 살 감정공부》 중에서 -
- ハム・ギュジョン<30歳感情勉強>より -

* 질투와 시기심.
* 嫉妬と猜忌

비슷한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同じ意味だが、全然違う方向です

질투와 시기심의 갈림길에서 헤메이던 경험,
嫉妬と猜忌の分かれ道に、迷った経験

괜히 상대방을 미워하고 초라해진 자신 앞에서
訳もなく相手も憎んで、しおれた自分の前に

의기소침해진 경험, 누구나 한 두번은 있을텐데요!
意気消沈した経験、誰でも一度か二度はあるとおもいます!

나이를 먹을수록 빨리 작별해야할 감정 때문에
歳をとるほど、早く別れなければならない感情のために

일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다면 내 감정과
仕事がつらく、人がつらければ、私の感情と

20140726.txt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겠지요.
さらにたくさんのお話を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명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瞑想が必要な理由です

猜忌の念が深い 발음 재생 (표제어: 시기)

시기심이 강하다

초점 (焦點)

[명사] 焦点; フォーカス; ピント.

괜히

[부사] (공연히의 준말) わけもなく; 無性に; やたらに.

초라하다

[형용사]

미스ぼらしい; 貧弱だ; しがない.

시おれている; 生氣がない. [큰말] 추레하다.

작별 (作別)

[명사] 別れ; 立ち別れ; 決別.

2014년 7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고3 아들딸에게
高3の息子、娘へ

여울목은 폭이 좁고
早瀬は幅が狭く

물살이 빠른 곳을 말한단다.
流れが速いところのをいう言葉です

우리는 삶을 살면서 늘 잔잔한 물가만
我々は人生を生きながら、ずっと穏やかな水辺だけ

건너는 것이 아니란다. 잔잔하고 고요한 곳이
渡るのではない。穏やかで静かなところが

있는가 하면 여울목같이 폭이 좁고 물살이
あるかと思えば、早瀬のように幅が狭く流れが

빠른 곳도 건너야 하는 경우가 많단다.
早いところも渡ら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多いのだ

고3은 인생의 첫 여울목을
高3は人生の初めての早瀬を

건너는 시기인거야.
渡る時期だ

- 나경일의 《아빠는 있다》 중에서 -
- ナ・ギョンイルの〈父はいる〉より -

* 고3.
* 高3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とても重要な時期です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一番つらい時期でもあります

물살이 빨라도 너무 빠른 여울목,
流れが速くて、とても速い早瀬

그러나 안전하게 잘 건너가야만 하는 물길,
しかし、安全にちゃんと渡らなければならない水の道

이 땅의 많은 고3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この地のたくさんの高3学生に、父の心で

응원과 격려의 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応援と激励のエネルギーを送ります

힘 내세요!
頑張ってください!

여울목

[명사] 早瀬の狭くなった部分.

流れが速い 발음 재생 (표제어:ながれ)

물살이 빠르다

잔잔하다

[형용사] (風·波·病·勢いなどがおさまって)静かだ; 穏(お...

물가

[명사] 水べ; 水際; 水辺; 岸; 岸辺; なぎさ; みぎ...

2014년 7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하라
いましなさ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今できることを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いましなさい。そうすれば

다음 것을 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他のことをするのが、楽になるのです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은
一歩を出せば、その次の歩みは

쉽게 뗄 수 있습니다.
簡単に離すことができます

- 사야도 우 조티카의 《마음의 지도》 중에서 -
- ウ・ジョーティカの〈心の地図〉より -

* 미루는 것도 버릇입니다.
* 伸ばすことも癖です

아주 안 좋은 버릇의 하나입니다.
とてもよくない癖の一つです

미루게 되면 할 일이 쌓이게 되고
伸ばせば、することが積もるようになって

할 일이 쌓이면 사람에게 밀리게 됩니다.
することが積もれば、人にたまるようになります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요? 아닙니다.
始まりが半分だというのでしょうか? いいえ

시작이 끝입니다.
始まりが終わりです

수월하다
[형용사] 易い; 易しい; たやすい; 容易だ; 楽だ.

첫발
[명사] 第一歩; 最初の一步.

떼다1
[타동사]

離す.
a(본디 자리에서) 元の所から離れるようにする; (取り)外(...
(사이를) 間をあける; 間合いを取る; 引き裂く[離す].

미루다

[타동사]
(期日·仕事などを)延期する; 延ばす; 持ち越す; ...

(責任·仕事などを他人に)任せる; 押しつける; ...
推測する; 推す; 推し量る.

버릇

[명사]

(습관) 癖; 性癖.

(예의) 行儀; 作法; しつけ.

밀리다

[자동사]

(物事が) たまる; 渋滞する; 滞る; つかえる.

['밀다' の受け身] 押される.